2019년 3월 25일 - 주의 탄생 예고 축일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수호 축일

마리아니스트 성소를 기리며

가족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는 우리의 공통 성소인 마리아니스트 성소 신비의 축일을 기념하려 준비합니다. 마리아니스트 성소는 주의 탄생 예고 축일에 항상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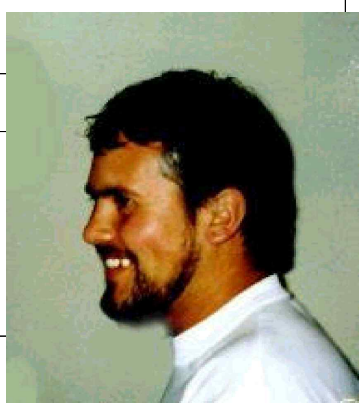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 사명에 협조하라고 하느님에 의해 불림을 받으셨고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예"라는 응답, Fiat이라는 응답으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20여년 전(1998년 9월 18일)에 콜롬비아의 초꼬에 있는 요로(Lloró)라는 곳에서 준군사조직(paramilitary)에 의해서 살해당한 미겔 앙헬 끼로가(Miguel Ángel Quiroga, 애칭으로 미첼이라고 불림) 수사님을 성소의 모범으로 제안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해당한, 자신의 사명에 열정적으로 투신한 젊은 수도자의 모범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성소의 의미깊이 살고, 미첼 수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정적인 삶 (life with *berraquera*[1])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해는 로마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시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겔 앙헬 끼로가 가오나 MIGUEL ÁNGEL QUIROGA GAONA, SM

1972년 10월 1일 - 1998년 9월 18일

1) "berraquera"라는 말은 콜롬비아식 스페인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활력, 생명력, 활기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1. 그의 생애와 성소

미겔 앙헬은 1972년 10월 1일 콜롬비아의 베레다 만시야-사바네따 주, 라 베가 광역시의 꾼디나마르까 지구에서 태어났다. 목축업과 농사를 짓던 부모(어머니 수사나 가오나Susana Gaona와 아버지 구스따보 아르만도 끼로가Gustavo Armando Quiroga) 사이에서 태어났다.

1975년에 보고타Bogotá로 이사를 하여 그 도시의 케네디 지역 뻬르뻬뚜오 소꼬로 Perpetuo Socorro 거리에 정착했다. 미첼은 뻬르뚜뚜오 소꼬로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고 보고타에 있는 Kennedy Unidad Basica de las Americas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그의 부모가 전해준 일화에 의하면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하루는 아주 큰 나무 옆에 땔감 나무와 막대기와 판자로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만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제대는 '성모님의 집'이라고 했으며 그 근처에서 가장 좋은 꽃을 꺾어서 아주 정성들여 갖다 놓는 등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그의 여동생 돌리와 프레디와 함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교차하여 가슴에 대고 기도 했다."

1989년 6월 17일, 자선의 성모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그의 대부는 마리아니스트 수도자 이냐시오 차파 신부님이었다.

일년 후인 1990년에 그는 청원기에 들어갔고, 수련기 끝날 무렵에 (1992년말) 초꼬에 있는 요로 공동체로 파견되었으나 그는 좀 주저하여 관구장은 순명의 서원의 이름으로 파견했다. 1993년 9월 그가 유기서원 갱신 신청을 했을 때에 이렇게 적었다. "*초꼬의 사람들 속에서 했던 사도직 체험의 기간은 은총의 시간들이었다. 고통과 기쁨, 탄압과 희망, 삶과 죽음의 상황 속에 있었던 체험은 나의 마리아니스트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그는 보고타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는 성숙하였고 행복한 수도 생활을 살았고, 항상 가장 가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열려 있었다. 그의 영성은 깊고 그의 주님에 뿌리박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 그가 피를 흘리기까지 보호했던 아이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에 뿌리박은 영성이었다. 1997년 10월에 그는 적기를 "*깊이에 한계가 없으신 그 분께 나 자신을 바치려는 아주 깊은 바람을 나는 가직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그 깊이는 마리아니스트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깊이입니다.*"

1997년 국립 교육 대학에서 사회과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1998년에 요로Lloró로 돌아 왔다.

요로의 원죄 없으신 성모 본당에서 그는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원주민과 흑인 콜롬비아인들을 집단 소유권을 위하여 (몇 년 후에 통과된 70호 법률) 그들의 옹호자로 일했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았던 젊은 봉사자인 프레디 벨레스(Fredy Vélez)는 미첼 수사가 살해 당하던 날에 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초꼬 지역에 발생한 전쟁의 위험과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으나 70호 법률을 통한 흑인 공동체의 토지에 대한 집단 소유권 보장을 위한 양성과 조직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고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첼 수사님은 여성들의 단체를 조직하여 카드와 꽃을 수제로 만들어 공정 거래를 통하여 스페인에 보냈다. 그 단체 안에서는 그들이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생활 안에서 통합적 양성도 진행해나갔다.

2. 그의 죽음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

1998년 9월 18일 오전 9시경, 보트에 있던 호세 마리아 구띠에레스 신부와 다른 보트에 있던 미첼 수사는 요로Lloro에서 온 교리교사와 농민들과 함께 수호 성인 축제를 지내기 위해 엘 야노(El Llano)로 가던 중이었다. 요로 지방을 떠난 지 8분 후에 그들은 아뜨라또 강에서 군인 복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준군사조직 (농민자위대)에 의해 요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류를 요구했고 수도자들과 다른 몇 사람은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몇 명의 농민들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했다.

보트에 타고 있던 마리아니스트 봉사자인 프레디 베레스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런 사실에 당면해서 준군사조직은 물에 빠뜨릴 위협을 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서류를 갖고 다녀야 할 거 아냐! 서류를 안 갖고 다니는 놈들은 이 강물이 마르도록 물을 다 마셔야 해!!’ 하면서 농민들을 욕하고 위협했다. 욕을 하고 위협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미첼은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들은 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합법적인 무장 병력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병사 중 하나가 한 말을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서류를 돌려받은 미겔은 이미 보트에 올라 탄 상태였고 그는 다시 말했다.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 마세요. 당신들은 신분증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자 즉시 그 병사는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미겔 옆에 있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여기 남아야 하면 우리도 모두 남겠어요.’ 나는 보트에서 내려서 그 병사와 미겔 사이에 섰다. 다른 보트에 있던 호세 마리아 신부님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애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는 선교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금방 떠났는데 경찰은 우리가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매체에 의하면 당신들은 게릴라만큼이나 불법적이예요.’ 그러자 그 병사는 바로 말했다. ‘우리를 그 놈들과 비교하지 마!’ 그때 18-20명의 제복을 입은 얼굴이 검고 키가 크고 건장한 병사들이 그 대열에서 미겔 앞으로 걸어 나와 미겔 앞에 서서 아무런 말없이 탄환을 장전하고 그를 가슴에 조준하여 총을 쏘았다. 미겔은 보트 안에서 즉사했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런 장면을 본 호세 마리아 구띠에레스 신부님은 말했다. ‘마을로, 마을로 갑시다.’ 문서를 요구했던 병사가 외쳤다. ‘안 돼, 마을로 가지 말고 강 상류로 가! 안 그러면 모두 쏴 죽일 거야!’ 보트조종사는 놀라서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울음 소리 안에서 엔진을 켜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 **미첼 끼로가의 살해 현장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프레디는 계속 말했다. “미겔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준군사조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위협을 받았을 때에, 미겔 앙헬 끼로가 가오나 (Miguel Ángel Quiroga Gaona)의 죽음은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공동체의 존엄성을 위한 의도적인 희생이었다. 미겔은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죽음과 전쟁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법 단체의 수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힘이 약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욕설과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3. 미첼에 대한 증언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미소를 잘 지었다... 그의 가슴에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 부드러움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느님께 바친 이들이 가지는 부드러움이다. 미첼은 자신에게 엄격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그는 자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것이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관심사인 학업에서 좋은 성과, 봉사하는 사명에 대한 투신, 그리고 개인기도 생활에 충실한 것에 모두 시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상당히 인간적이었다. 그는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여러 중요한 날을 경축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형제애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능숙했다.”

(미첼의 양성담당자인 마누엘 곤살레스 신부의 증언)

미첼은 용기를 내어 “우리를 방어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내주었다. 그런 지독한 태도를 가진 그들을 나무라는 용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불의를 대면하면서,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연대의 영혼을 가져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었다.
봉사에 상당히 투신한 그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가족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미첼 죽음의 증인, 프랭클린 안또니오 렌떼리아의 증언에서)

“그는 항상 사람을 위한 봉사의 현장에 있었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가장 비천한 이와 함께 있었다.
그는 어느 누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이가 같았지 어느 사람에게 더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초꼬Chocó 지역을 좋아했다.
그의 죽음은 불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를 죽인 이유입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야기한다. 진리가 그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뒤에 숨겨 두는 일이 없었다. 미첼이 했던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는 자신의 삶을 바침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른 이에게 주입시켰다. 그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요로Lloro의 여성 단체인 라스 루차도라스 회원 까르멘 오네이다 모스께라의 증언)

“미첼은 요로Lloro에 머문 시간이 짧았다. 우리가 나눈 것은 적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는 많은 것을 주었다. (...)
그가 죽은 날, 내가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마을은 슬펐다. 자연 그 자체가 그렇게 느껴졌다. 오후의 날씨는 어두웠다. 그날 밤에 아주 잔혹한 폭풍이 있었다. 차디찬 냉기가 우리를 덮쳤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가 떠났기 때문이다. 며칠간 슬픔이 계속되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요로(Lloro)는 울었다.[2)]“

(본당의 협력자이자 마리아니스트 공동체 회원
아이다 루스 모스께라Aida Luz Mosquera의 증언)

“미첼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행복을 다른 이에게 전달했다. 미첼이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지었다. (...)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가치들을 제공했다. 그는 사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여기 요로의 우리 모든 이에게 생명을 바친 우리의 친구이다. (...) 미첼의 죽음으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미첼의 죽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첼의 죽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그 놈들을 막기 위해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첼이 어떻게 기쁘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아주 슬퍼서 울어버린다. 나는 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berraquerra”와 함께 당신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는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여성 단체 라스 루차도라스의 회원 크루스 마리나 꼬시오(Cruz Marina Cossio의 증언)

---

2) 스페인어 원본은 “Lloró lloró entero”이다. 지명인 Lloró는 “울다”는 의미가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체가 울고 울었다”는 뜻이다.

4.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청원기도와 감사기도

청원기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기도하라)

- 마리아회의 모든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첼이 살았던 열정과 기쁨과 봉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명과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바칠 수 있도록 해주소서. (SM)

- 선하신 성부여, 우리 MLC는 한국에서의 총회의 열매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사명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더욱 힘차고 열정적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투신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소서. (MLC)

-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델 시복의 큰 선물로 인하여 우리 성소 안에서 쇄신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소가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살도록 준비되어 있고 성부의 뜻을 행하도록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FMI)

- 알리앙스 마리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모님의 처분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단체를 돌보아 주시어 우리 자신을 성모님의 손에 맡겨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당신의 아드님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성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세상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우리가 받았던 선물에 충실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은총을 주소서.

감사 기도

-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미첼과 같이 마리아니스트 성소에 충실하여 우리의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와 이 은사를 살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성부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 가족과 일터, 그리고 이웃을 복음화하는 이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이들, 다른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이들, 불의에 맞서는 이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주님, 감사합니다. 아델처럼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자비와 모성적 부드러움의 징표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어왔고, 지금 삶을 주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성부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 탄생 예고 축일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마리아의 은총에 감사하며, 세상에 당신의 아들 우리 구세주를 현존하게 하는 마리아의 사명에 우리가 협력자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자발적인 기도가 추가될 수 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삶을 저의 삶에 결합시키소서.
저의 삶을 당신의 삶에 결합시키소서.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의 삶에 결합시키소서.
그래서 제가 다른 이와 나누고
그들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방법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 생명, 자유 안에서
성부 하느님의 나라로 나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미첼이 매일 영성체 후에 바쳤던 기도)

제안하는 기념 방법의 개요

말씀의 전례 (미사가 없이)	미사 안에서 하는 기념
● 시작기도 ● (회중에게 하는 전반적 소개) ● 복음 말씀: 요한 12장 24절 - 26절 ● 미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소개 ● 기도의 시간 (몇 가지 증언들을 중간에 배치) ● 청원기도와 감사기도 ● 주님의 기도 ● 마침기도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의 독서 말씀 ● 미첼의 삼과 죽음에 관한 소개. (소개는 기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거나 강론시간에 한다.) ● 청원 기도와 감사기도 (제시된 기도 이용 가능) ● 미첼에 대한 증언을 강론 때나 영성체 후에 읽을 수 있다.